이안의 Media In Buddha ⑬ 영화 〈오늘 출가합니다〉



▶한줄요약
오랫동안 출가를 준비해 온 아저씨 '성민'은 자신의 차를 주겠다며 친구를 꼬셔 출가를 하기 위해 사찰을 찾는다. 하지만, 나이 문제와 결혼 경력으로 출가 시도는 번번히 실패하는데…. 출가해 영원한 자유를 얻겠다는 '성민'은 출가할 수 있을까?

아빠가 출가를? 가출이 아니고?



4월 5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한 〈오늘 출가합니다〉의 한 장면.

가출과 출가. 한자로 같은 자를 조합한 말인데 앞뒤 순서가 바뀌면 뜻도 확 바뀌는 말. 집 가(家), 날 출(出). 가출이란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가는 것이고, 출가라고 하면 세속의 집을 떠나 불문에 들어 승려가 되는 것을 이르는 말이 된다. 가출은 세속적인 일탈로 여겨지지만 출가는 종교적으로 성스럽게 여겨진다. 응? 왜 그러지? 그런데 가만, 둘 다 집을 나가야 하는 거구나. 가족을 떠나야 하는 거구나!

〈오늘 출가합니다〉는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지는 영화다. 영화는 오랫동안 출가를 준비한 성민(양흥주)이 신변을 정리하고 스승이 소개한 절에 가서 머리 깎기 전 날 친구들과 속세와의 이별하는 자리에서 시작한다. 아, '스님들도 출가하기 전에 군대 가는 청년들처럼 송별회를 하는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기에는 좀 별스럽다. 출가하겠다는 성민이나 같이 자리한 친구들이나 얼굴이며 몸매며 말투까지 다들 아저씨, 그것도 아주 나이 지긋한 중늙은이들이기 때문이다.

'수행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랴' 싶어도 다 자란 자식도 있고, 오래 함께 살아온 아내도 있는 사람이 세속에서 살다 살다 할 것 다하고 스님이 되려한다는 것은 등 두드리며 격려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굳은 뜻을 세웠다는데 억지로 뜯어말릴 수도 없는 친구들 표정이 난감하다.

이런 일이 영화적 상상이 아니라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데서 〈오늘 출가합니다〉의 재미와 공감이 솟아난다. 이 영화의 제작자인 박준호 프로듀서가 학창 시절 친구가 출가하는 길에 함께 했다고 한다. 박 프로듀서는 "그 친구의 출가가 이후 자신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면서 이 체험담에 공감한 김성환 감독과 뜻을 모아 이렇게 영화가 만들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박준호 프로듀서가 친구의 출가에 함께 했던 일정은 1박 2일의 짧은 여정이었지만 그 이후에도 스님이 된 친구와의 사연이 하나씩 늘어났고, 이 이야기를 김성환 감독도 지속적으로 듣게 되었다. 그러면서 김성환 감독이 먼저 "그 스님은 잘 지내세요?"라고 관심을 보이게 되고, 또다시 시간이 흘러 "그 스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면 안 될까요?"라는 제안까지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오래 갈무리 된 진짜 출가 스토리의 진정성이 지인 중심 지역 예술인들과의 합을 이루면서 이 영화는 독특하고, 흥미로운 얼개와 장면들 안에서 억지스럽지도 않으면서 평범하지도 않은 이상한 조합의 인물들을 두루 이야기 속에 불러들인다. 심지어 실제 스님들과 크고 오래된 절, 흔히 볼 수 없는 불교 행사까지.

시작부터 애매한 이 영화의 주인공 도희 아빠 성민 아저씨가 쉽게 출가할 수 있었으면 영화가 될 이야깃거리도 없었을 터.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는 속담도 있듯이 성민의 머리를 깎는 일이 영 쉽지 않다. 스승의 소개로 처음 찾아간 절에서는 나이가 많다고 거절당하고, 다시 알음알음 찾아간 절에서는 세속에서 부부의 연으로 살아가다가 출가하겠다고 이혼한 기간이 문제가 되어 또 거절당하고. 그저 절에 의탁해 봉사도 하고, 일손도 거드는 객으로 있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계를 받고 승적에 이름을 올리는 일은 의지나 불심만으로 이뤄지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4월 5일 개봉한 영화 '오늘 출가합니다'
아저씨 '성민' 좌충우돌 출가 여정 그려
녹록치 않은 출가 과정 위트있게 담아내
통도사, 월정사 등 명산대찰 풍광도 눈길

가만 짚어보니 처음부터 출가는 어렵고 어려운 일이었다. 석가모니 또한 열네 살에 결심한 출가의 뜻을 이룬 것이 무려 스물아홉의 나이였다. 그 지난한 고타마 싯다르타의 출가 일화를 일컬어 사문유관(四門遊觀) 또는 사문출유(四門出遊)라고 한다. 싯다르타가 태자 때에 카필라성의 동·남·서·북에 난 네 개의 문 밖에 나가 인생의 4고(四苦)인 생로병사,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모습을 직접 보고 출가를 결심하기까지의 이야기다.

고타마가 태어날 당시 아시타라는 선인이 예언하기를 왕자가 자라서 현실세계에 머무르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전륜성왕이 될 것이요, 그렇지 않고 출가해서 수행을 한다면 위대한 깨달음을 얻는 자가 되리라고 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아버지 슈도다나 왕은 아들의 출가를 막기 위해서 세상과의 접촉을 막고 왕자로만 키우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다.

하지만 아무리 왕이라 해도 자라나는 아들을 언제까지고 성 안에만 묶어 둘 수는 없는 것이고, 청소년 시기가 되면서 나서야 할 일도 생기고 겪어야 할 일도 생기는 법. 자신을 위해 특별히 만든 궁전 밖으로 나설 일이 있을 때마다 고타마는 성을 나서려 할 때마다 채 세상을 겪기도 전에 매번 세상의 고통을 보고 깊이 생각에 들며 발길을 되돌리곤 했다는 것이다.

아름다운 청소년이던 싯다르타는 동문 밖에서 늙은이를 보고 젊음이 사라진 존재의 누추함을 보았고, 또 세월이 지나 남문 밖에서는 병든 이를 보고 인간의 허약함을 느꼈으며, 또 세월이 지나 서문 밖에서는 죽은 이를 보고 생명의 유한함을 깨달으면서 날 때부터 생각이 깊었던 싯다르타는 권력과 생명이 허망하고 부질없다는 고뇌를 겪었다. 그런데 굳이 왕이 되고 싶을 리도 없었고.

그렇게 존재와 세상의 무상함에 대해 고뇌하던 시기 가운데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았으나 그 고뇌는 그치지 않았다. 그러다가 북문 밖에서 수행자를 만나 마침내 출가의 뜻을 굳히게 되었던 것이다. 갓 태어난 아들과 사랑하는 부인을 남겨두고 나서서 멀고도 험한 6년 동안의 극심한 고행으로도 깨달음을 얻지 못할 때는 또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까? 세속에서의 극단적인 쾌락도, 죽지 않을 만큼만 생명활동을 이어가는 혹독한 고행도 아닌 '자비' 로 세상과 소통하면서 서른다섯에 이르러서 깨달음을 얻어 붓다가 되었으니 성민 아저씨가 출가를 결심했다고 바로 승려가 되지 못하는 것도 다 부처님 뒤를 잇는 길일 것이다.

싯다르타의 성문 넷보다 성민의 여정은 더 스펙터클하다. 지역영상위원회의 제작지원을 받은 작품답게 주요 촬영지인 원주를 비롯해 관광지로 사랑받는 강원도 곳곳의 풍광이 마치 여행을 함께 하는 듯 한 시각적 즐거움을 준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성민이 출가를 허락 받고자 찾는 영축산 통도사, 오대산 월정사, 지리산 천은사, 치악산 구룡사와 같은 명산대찰들을 두루 보여주고 원주 미륵사의 미륵불처럼 지역 불자 아닌 사람은 잘 알지 못하던 곳까지 친절한 관광 가이드처럼 속속들이 카메라로 안내해준다. 직접 가서도 잘 볼 수 없는 전제 풍광은 수시로 하늘 높이 드론을 띄워 보여주고, 계절의 변화도, 바닷가 해돋이도 오래오래 공들여 스크린에 펼쳐낸다.

그러면서 이야기의 씨줄인 성민이 출가하러 가는 길에 같이 가주면 자동차를 주겠다는 제안에 넘어가주는 척 첫 출가 목적지였던 절에 데려다주는 절친 진우(나현준)는 영화 안에서 독립영화 제작자로 등장해서 늙다리 아저씨 출가 못지않게 힘든 영화제작 과정을 날줄로 엮어낸다.

이 두 사람의 출가와 영화제작은 어렵지만 이루고 싶은 꿈이다. 그 꿈은 원주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관인 '아카데미 극장' 을 배경으로 현실에서 독립영화, 지역영화가 겪고 있는 아슬아슬함이 인생의 생로병사 못지않게 영화에는 커다란 고난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예전 건물 그대로 영사실부터 객석, 스크린, 극장주의 살림 공간까지 남아있는 원주 아카데미 극장은 지역에서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문화거점으로 사랑받고 있으나 멀티플렉스 시대에 건물 자체의 존폐를 걱정하고 있는 명소이다.

진우와 성민은 출가 여정의 출발도 아카데미 극장에서 하고, 성민이 출가의 원을 이루는 동안 진우는 고군분투하던 영화를 완성해 관객을 만나는 무대를 아카데미 극장에서 맞는다. 아마도 김성환 감독은 성민이 출가하는 것 못지않게 아카데미 극장이 지역 영화공간으로 길이 남게 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극장 안에서 특별 행사를 하는 시네필들, 문화활동가들을 직접 스크린에 불러들이고, 세월의 풍파로 퇴락한 극장 건물에 파사드 영상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입히면서 이 영화 안에서 원주 아카데미 극장은 명산대찰에 버금가는 공간으로 재현되고 있다.

이렇게 지역 문화예술인들, 문화공간들과 불교계의 지원까지 두른 이 영화를 만든 김성환 감독은 "〈오늘 출가합니다〉는 종교영화는 아니지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영화로 만들고자 했다"라는 기대에 독립영화, 그것도 지역 독립영화의 희망까지 담아냈다.

엔딩 크레딧이 오를 때 동해 바닷가 흰모래밭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고픈 성민의 래퍼 딸 '도희' 가 신나게 쏟아내는 노랫말처럼 "갑자기 찾아온 아빠의 영원한 가출. 아빠는 원하지 영원한 속세의 탈출. 혹시 나 때문에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걱정하지 마 그냥 아빠의 길을 가" 라는 응원과 천만관객, 천만공감을 축원하는 스님이 된 성민의 기원이 어우러지는 이 영화는 로드무비이자 버디무비이고, 가족영화이자 불교영화며, 성장영화이자 여행장려영화이기도 하다.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가 한창이던 시기에 제2회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된 것을 비롯해 서울독립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 코리아프라이, 울주국제산악영화제, 평창국제평화영화제 등 여러 영화제에서 먼저 관객들을 만났던 이 재밌는 영화가 드디어 극장에서 개봉한다는 소식이 마치 성민의 출가 소식이나 진우의 영화제작 소식만큼이나 반갑다.

〈영화평론가〉



